

지역주민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연구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Study of the Factors Determining Life Satisfaction of Local Residents in Chungbuk Province

조택희*, 배민기**
충북대학교*, 충북연구원**

Taek-Hee Cho(choth@chungbuk.ac.kr)*, Min-Ki Bae(mkbae@cri.re.kr)**

요약

본 연구는 지역 단위에서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9개 영역별로 만족도를 측정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어떤 요인이 주민의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규명하였다. 자료 수집은 7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한 대면 설문조사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유효 설문부수는 1,619부이다. 분석 결과, 1) 전체 생활만족도는 7점 척도에서 4.433점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의 만족도가 4.9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문화의 만족도가 4.155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2) 영역별 회귀분석을 보면 9개 영역 중에서 '소득 소비' 영역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노동'과 '생활 및 사회서비스' 부문도 생활만족도를 형성하는데 중요요인으로 추정되었다. 3) 9개 영역별로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소득소비'에서는 '가계의 재정상태', '노동'에서는 '근로시간', '생활 및 사회서비스'에서는 '지역의 정치 및 행정', '여가문화'에서는 '문화생활', '보건복지'는 '의료시설', '교육'은 '교육성과', '교통'은 '도로망', '주거환경'은 '주택', '재난안전'은 '재난 횡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시행에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중심어 : | 생활만족도 | 문화생활 | 의료서비스 | 재난 안전 | 지방정부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factors determining life satisfaction (LS) of local residents in chungbuk province. After reviewing the literature, this research selected and developed the 9 categories and specific indicators of LS. This research had obtained data through a face to face investigation using questionnaire, which surveyed 1,619 residents at 11 local governments in chungbuk province. This research analyzed the data using descriptive statistical method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method. This research found that 1) the level of overall LS had 4.433 points out of 7, the level of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had highest point (4.911), but the level of leisure culture satisfaction had lowest point (4.155), 2)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effect of income and consumption level on LS was highest. The degree of labor and life-social services was important factor to increase L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expected to provide many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policies to improve LS in the country and local governments.

■ keyword : | Indicators of Life Satisfaction | Cultural Life | Medical Service | Disaster and Safety | Local Governments |

I. 서론

과거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기 이전인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생산과 소비의 양적인 성장이 생활 만족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수명이 연장되면서 물질적 풍요 이외에 건강, 여가, 환경, 교육, 소득분배 등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다. 따라서 최근에는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생활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정성적인 지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더욱이 생활만족도는 ‘행복지수’라는 형태로 국가 단위에서 지수 측정 및 국가 간 비교가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지방자치체가 정착되면서 지방 단위에서도 주민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및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행해진 ‘생활만족도’ 또는 ‘행복지수’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만족도 및 지수의 측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행해졌다. 그러나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한 지수의 측정이 아니라 주민의 만족감을 높여 행복하게 살게끔 하는 것이라면 어떤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행복지수에 대한 많은 연구는 국가 단위에서 행해진 경우가 많다. 최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행복지수를 개발하고 있으나 이것도 광역지자체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가 또는 광역단위 지자체 보다 작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자연·지리적,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지역적인 특징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적인 특징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규명도 의미있는 연구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단위에서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구분하고 각 분야는 또 세부분야로 구성하여 어떤 요인이 주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연령이나 성별, 학력 등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거주지의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도 충북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지역을 충북으로 한 이유는 시간적·물리적·경제적 제약을 고려하고 다양한 지역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충북은 광역지자체 중에서 지역이 넓지 않고 광역시나 제주도처럼 특정 지역적·산업적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고 비교적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II. 생활만족도 구성요소 및 설문조사 개요

1. 생활만족도 구성요소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삶의 만족도’는 어느 특정분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올바른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고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요인을 성격에 따라 몇 개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성 및 크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각 부문은 좀 더 구체적인 생활요소로 구성하여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성부문의 설정은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많은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영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였다.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해외 선행연구로 영국 ‘레가툼 위원회(The Legatum Institute)’에서 작성하는 ‘레가툼 번영지수(The Legatum Prosperity Index)’와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유럽 28개국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대해 조사하는 ‘EurLIFE’를 들 수 있다.

‘레가툼 번영지수’는 경제, 기업이 정신과 기회, 교육, 보건, 안전 및 안보, 개인의 자유, 사회자본의 8개 부문을 종합해 11개국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글로벌 지수

1 청주권은 충북 전체인구 및 산업생산의 과반을 차지하는 도심지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진천군과 음성군 등은 농촌지역이지만 제조업체 수 및 인구가 타 시군에 비해 많으며 단양은 관광, 제천은 시멘트, 옥천·영동은 포도를 중심으로 한 농업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며 경제수준과 행복정도를 종합한 평가지수다. 산출 방법은 소득과 관련된 변수의 값은 패널 회귀모형(panel regressions), well-being의 경우에는 로짓 회귀모형(Logit regressions)을 사용하여 구한다.

‘EurLIFE’는 UNDP에서 유럽의 28개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조사항목은 건강, 고용, 소득, 교육, 가족, 사회참여, 주택, 환경, 교통, 안전, 여가, 생활만족도로 구성되었다. 산출 방법은 각 국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18세 이상의 응답자에게 면접을 실시하며, 표본 자료는 국가의 구성원의 유형에 따른 나이, 성별, 지역에 의해 표준화 된다.

‘생활만족도’ 또는 ‘삶의 질’과 관련된 국내연구로 국가단위에서는 통계개발원에서 작성한 ‘삶의 질 지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과 같은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 측정과 관련된 지표작성은 경남과 경기도에서 시도되었으며 연구별 구성영역이 조금 상이하나 전반적인 구성은 유사하다. 즉, 국내외를 막론하고 경제, 교육, 안전, 환경 등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영역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표 1. 국내외 ‘국민 생활만족도 조사’ 구성영역

선행연구	구성 영역
LEGATUM PROSPERITY INDEX	경제, 기업가 정신과 기회, 거버넌스, 교육, 보건, 안전과 안보, 개인의 자유, 사회자본
EurLIFE	건강, 고용, 소득빈곤, 교육, 가족, 사회참여, 주택, 환경, 교통, 안전, 여가, 생활만족도
통계개발원 ‘삶의 질 지수’	소득소비, 건강, 노동, 교육, 주거, 안전, 가족, 환경, 사회통합, 문화여가
경남도민의 삶의 질 평가	가족, 경제, 직업, 교육, 건강, 주거, 환경, 안전, 문화와 여가, 정부와 사회참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평가	지역경제, 교육문화, 교통, 주거환경, 정보화, 일반행정, 사회복지, 사회안전,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생활 만족도’의 요소로 사용된 영역 모두를 포함하여 조사한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유사성 및 중복성을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그룹화하였다. 그 결과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총 9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고 상호관계를 규명하였다. 9개 부문은 소득·소비, 고용, 교육, 여가·문화, 보건·복지, 교통, 재난·안전, 주거환경, 사회생활 및 공공서비스로 구성하였다. 영역에 따라 구

분이 모호하거나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중요성 및 각 영역의 세부구성요소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예로 고용은 소득과 소비의 원천이 되고 교통은 주거환경에 포함될 수 있으나 주민생활에서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따로 분류하여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9개 영역은 다시 각 분야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보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항목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정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표 2. 주민 ‘생활 만족도’ 지표 구성

상위 영역	세부영역	상위 영역	세부영역
소득 소비	-생활수준 만족도 -소득 분배의 형평성 -가계 재무상태	교통	-도로망 정비 -교통 체증 정도 -대중교통만족도 -주차 만족도
고용	-직무 스트레스 -업무 자긍심 -근무환경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	재난안전	-재난의 안전 -치안 만족도 -구난체계만족도 -안전교육훈련
교육	-교육성과 만족도 -공교육시스템만족도 -사교육 환경 만족도	주거환경	-주택 만족도 -생활편의만족도 -환경의 청결도 -소음의 정숙도
여가 문화	-개인적 취미활동 -가족과 여가생활 -문화생활 만족도 -타인 위한 봉사활동	생활 및 사회서비스	-이웃동료 간 갈등 -정치 행정 만족도 -개인적 모임 활동
보건 복지	-건강상태 -의료시설 만족도 -의료복지서비스만족도		

2.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는 응답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 시·군별로 직접 방문하여 대면 설문을 실시하였다. 만족도의 측정 방법은 각 영역별로 세부 결정요인을 선택한 뒤 각 요인에 대해 불만족(1점)~만족(7점)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모집단의 성격을 정확히 알려면 표본수가 많을수록 좋으나 경제적·시간적·물리적 제약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갖도록 배분하였다. 설문수를 배분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인구비례이나 총복의 경우 청구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²⁾ 이를 적용할 경우 인구가 적은 군은 대표성에 문

2 2014년 주민등록 연앙인구 기준으로 청주시는 총복인구의 52.7%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조사 가능한 전체 표본 수를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수준에서 균등 분배 한 후 인구비례를 감안하여 약간의 조정을 하여 지역별 설문 수를 정하였다. 전체 설문 부수는 유효 설문지 기준으로 1,619명을 조사하였으며 각 청주시를 제외한 각 시군은 약 130여부로 균등하게 분배하였으며 청주는 약 170명을 설문조사 하였다. 기타 성별, 연령별 등도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갖도록 노력하였다.³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명,%)

인적특성		응답자수 (비중)		인적특성		응답자수 (비중)	
성별	남자	813	49.8	가구 월 소득	100~200만원	165	10.2
	여자	806	50.2		200~300만원	554	34.2
연령	20대	229	14.1		300~400만원	604	37.3
	30대	405	25.0		400~500만원	220	13.6
	40대	402	24.8		500만원 이상	76	4.7
	50대	353	21.8	사무직	385	23.8	
	60대 이상	230	14.0	전문직	51	3.2	
학력	초졸이하	84	5.2	직업	자영업및서비스직	535	33.0
	중졸	266	16.4		농림어업및축산업	315	19.5
	고졸	710	43.9		전업주부	266	16.4
	대졸	521	32.2		기술직 및 생산직	59	3.6
	대학원졸	38	2.3		학생 및 무직	8	0.5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보면 남녀의 성별 비중은 거의 유사하며 연령별 비중은 30대와 40대가 거의 동일하게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50대의 비중이 크다. 학력은 고졸이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대졸이 다음으로 많았다. 가구의 월 소득에서는 300~400만원 대가 가장 많았으며 200~300만원이 가구비중이 다음으로 많았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으며 사무직, 농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III. 추정결과

1. 영역별 만족도 추정결과

충북 도민의 생활만족도를 추정한 결과 총 만족도는

³ 지역별 분석은 각 영역별로 12개 시군의 분석이 이루어져야함으로 연구범위가 광범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충북전체만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7점을 만점으로 하였을 때 4.433점을 보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편차기 크지는 않았으나 주거환경 영역이 4.9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문화가 4.155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32개 세부 영역 중에서 주변 환경의 깨끗함에 대한 만족도가 5.1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설문의 표본이 인구비례가 아닌 각 기초자치단체의 대표성도 함께 갖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환경의 오염이 상대적으로 덜한 농촌지역이 충북에 많이 포함된 것에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타인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인한 만족도가 3.547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는데 이것도 설문대상에 농촌지역이 많이 포함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아직까지 봉사활동이 개인보다는 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단체 활동이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소비 부문에서는 가계의 재무상태가 가장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분배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고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양호하나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긍심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가·문화생활 영역에서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타인을 위한 봉사는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교육부문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교육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양호하나 사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 영역에서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지역 의료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은 지역 도로망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있다고 느끼는 반면 주차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난·안전 부문은 상대적으로 충북지역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에 비해 유사시를 대비한 안전교육과 훈련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는 나타났다. 주거환경은 주변이 깨끗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생활편의시설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이웃 및 동료간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정치나 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영역별 생활만족도 추정결과

영역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총 생활만족도	4.433	0.887	0.200
소득·소비	4.464	0.941	0.210
생활수준 만족도	4.399	1.061	0.241
소득 분배의 형평성	4.122	1.014	0.245
가계 재무상태	4.425	1.027	0.232
고용	4.524	0.944	0.208
직무 스트레스	4.279	1.050	0.245
업무에 대한 자긍심	4.183	1.053	0.251
근무환경 만족도	4.441	1.066	0.240
근로시간 만족도	4.449	1.081	0.242
교육	4.442	0.797	0.179
교육성과 만족도	4.366	0.892	0.204
공교육 시스템 만족도	4.243	0.874	0.205
사교육 환경 만족도	4.209	0.869	0.206
여가문화	4.155	0.905	0.217
개인적인 취미활동	4.003	1.023	0.255
가족과의 여가생활	4.350	1.002	0.230
문화생활 만족도	3.958	0.985	0.248
타인을 위한 봉사활동	3.547	1.168	0.329
보간·복지	4.470	0.879	0.196
건강상태	4.930	1.145	0.232
지역 의료시설 만족도	4.195	1.000	0.238
의료복지서비스 만족도	4.219	0.962	0.228
교통	4.807	0.876	0.182
도로망 정비 만족도	4.950	0.876	0.176
교통 체증 정도	4.862	1.035	0.212
대중교통 만족도	4.640	1.030	0.222
주차 만족도	4.440	1.030	0.231
재난·안전	4.846	0.869	0.179
재난으로부터 안전	5.092	0.940	0.184
치안 만족도	4.890	0.995	0.203
구난체계의 만족도	4.604	0.937	0.203
안전교육 훈련 정도	4.366	0.947	0.216
주거환경	4.911	0.891	0.181
주택 만족도	4.847	0.986	0.203
생활편의시설 만족도	4.547	1.181	0.259
환경의 청결도	5.142	1.060	0.206
소음의 정숙도	5.134	1.069	0.208
생활 및 사회서비스	4.645	0.843	0.181
이웃 및 동료 간 갈등	4.672	0.995	0.212
정치 및 행정 만족도	4.346	1.046	0.240
개인적 모임 및 활동	4.355	1.125	0.258

주1: 만족도는 7점 만점 리커트 척도 결과임.

주2: 변이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변동성을 의미함.

충북도민의 생활에 대한 평균적인 만족도 수준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편차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표준편차와 변이계수를 살펴보았다. 개별 값이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산재해 있는 가를 살펴보기 위해 표준편차를 사용하나 이는 평균값의 단위에 따라 차이가 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척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

른 편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평균값의 크기를 감안한 변동성을 보기위해 변이계수를 도출하였다. 변이계수에서 흥미로운 것은 상위영역으로 갈수록 변이계수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보다 넓은 범위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할 때에 비해 세부적인 단위에서 개인적인 편차가 더 큼을 보여준다. 포괄적인 것은 전반적인 느낌에 근거하여 만족도를 표출 할 수밖에 없으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족도를 표출하게 되어 개인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9개 영역에서는 교육과 재난·안전 영역이 만족도의 개인적 편차가 가장 덜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여가·문화 영역이 개인 간 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타인을 위한 봉사활동’이 개인적 편차가 가장 크게 조사되었으며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개인적인 모임, 활동’ 등도 편차가 큰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도로망의 정비’ 부문에서 가장 응답자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이 그 다음으로 편차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개인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만족도의 조사가 단위정도에 따라, 세부영역에 따라 각각 이루어졌으므로 개인적 특성에 대한 만족도의 검증도 각각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지면이 한정되어 있고 세부영역에 대한 분석이 가져다주는 의미도 전체 만족도에서 알 수 있는 것보다 크게 차이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가장 큰 단위에서 조사된 ‘총 만족도’에 대한 결과만 [표 5]에 제시하였다.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 연령대로는 50대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나 특성별 평균 만족도 차이가 각각 0.11, 0.19정도로 차이는 크지 않았다. 20대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과 진로 등으로 고민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에 따른 평균차이에 대한 분산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연령별 평균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t-test를 실행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지면 관계상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된 성별의 경우만 정리하였다.

표 5. 개인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성별	성별	평균	F-value	학력별	평균	F-value
성별	남성	4.49	2,61**	학력별	초졸이하	4.13
	여성	4.38			중졸	4.26
직업별	사무직	4.64	24,23***		고졸	4.30
	전문직	5.53			대졸	4.65
	자영업, 서비스직	4.33		대학원졸	5.52	
	농림어업, 축산업	4.39		소득별	100-200만	3.80
	전업주부	4.32			200-300만	3.97
	기술, 생산직	3.98			300-400만	4.66
	학생및무직	3.63			400-500만	5.04
					500-600만	5.55

주1: * P<0.05, ** P<0.01, *** P<0.001
 주2: 성별의 경우 변수가 2개인 관계로 t-test를 실시함.

직업별로는 전문직의 경우 평균 만족도가 5.53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사무직이 4.64로 나타났으며,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삶의 질’에 대한 전반 만족도는 평균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생산직의 경우 3.98로 가장 낮은 3.63의 만족도를 보인 학생 및 무직의 경우와 0.35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전문직과는 -1.55의 큰 차이를 보였다. 직업에 따른 평균 만족도 차이에 대한 ANOVA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직, 전문직인 경우 다른 직종보다 만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졸업(중퇴포함) 이하인 경우 평균 만족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결과 학력 따른 만족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졸업 경우와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자의 평균 만족도가 다른 학력의 경우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별 ‘삶의 질’에 대한 평균 만족도를 비교해본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에 따른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준 이상의 만족을 위해서는 300-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OVA 결과 소득에 따라 유의적으로 만족도에 대한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100-200만원 그룹과 200-300만원 그룹 사이에 평균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외의 소득별로는 만족도 차이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⁴

요약하자면 개인적 특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고소득, 고학력, 전문직, 남성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령이나 사는 지역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 학력, 소득, 직업 등은 상호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즉, 고학력일수록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고소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회귀분석

설문지의 구성이 전체 생활만족도에 질문과 이를 구성하는 9개 영역에 대한 각 영역의 만족도,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32개 세부 영역에 대한 만족도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종속변수로 상위개념의 만족도를 사용하고 설명변수로 상위영역을 구성하는 하위 세부영역의 만족도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한다면 어느 요인이 상위 영역의 생활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수 있다. 또한 유의성 여부와 함께 영향의 정도도 살펴볼 수 있다.

표 6. 생활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상수항	소득소비	노동여건	교육
-0.038	0.582***	0.142***	0.026*
여가문화	보건복지	교통	재난안전
0.107***	0.057***	0.009	-0.048***
주거환경	사회서비스	R ²	F-value
0.005	0.122***	0.809	761.79***

주: * P<0.05, ** P<0.01, *** P<0.001

충북도민의 생활만족도와 이를 구성하는 9개 영역과

4 그 외에 지역에 따른 차이가 생활만족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에 따른 분석결과는 각 지역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조사기관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리하지 않았다.

의 관계를 보면 주거환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유의적인 결과가 나와 구성된 영역이 생활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잘 구성되었음을 말해준다. 유의적이면서 계수 값이 가장 크게 추정된 변수는 소득·소비로 인간생활의 궁극적 목표인 효용의 획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비와 이의 원천인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노동여건이 유의적이면서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조사대상 중에 근로자가 많고 이들의 경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자 소득의 원천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 및 사회서비스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장 이외에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주변 이웃과의 관계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여가·문화, 보건·복지 순으로 생활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 수명연장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교육과 주거환경은 유의성이 낮게 분석되었고 재난·안전의 경우는 계수 값의 부호가 부의 결과가 나와 이론상 부합되지 않았다.

생활만족도에 어떤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 대해 세부항목과의 연관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정책적 시사점을 높이는 데에도 일조 할 수 있다. ‘소득·소비’ 영역을 살펴보면 구성된 영역 모두에서 유의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영향의 정도는 소득과 소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가계의 ‘재정상태’가 소득 소비 영역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소득분배’에 대한 만족도와 ‘소비상태’의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들의 차이는 크지 않게 추정되었다.

표 7. 소득소비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상수항	소비상태	소득분배
0.571***	0.204***	0.217***
재정상태	R ²	F-value
0.473***	0.762	1728.82***

주: * P<0.05, ** P<0.01, *** P<0.001

노동여건에 대한 구성항목은 4개로 이루어졌는데 ‘직

무 스트레스’, ‘직무 자긍심’, ‘근로환경’, ‘근로시간’으로 구성되었다.

표 8. 노동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상수항	직무스트레스	직무자긍심
0.549***	0.253***	0.106***
근로환경	근로시간	R ²
0.273***	0.276***	0.813
		F-value
		1762.15***

주: * P<0.05, ** P<0.01, *** P<0.001

모든 변수에서 유의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변수 간 계수 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로시간과 근로환경이 유사하게 노동부문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직무 스트레스도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어 세 개의 영역이 노동부문의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영역에 대한 회귀방정식에서도 모든 변수에서 유의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교육성과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어 점수로 표시되는 학업성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부모와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원, 교육강좌, 훈련 등 교육인프라의 계수 값이 유사하게 추정되어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에 학교수업 체계나 방과 후 수업, 평생교육, 소외계층 교육지원 등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영역도 적지 않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교육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상수항	교육성과	교육시스템
0.531***	0.372***	0.183***
교육인프라	R ²	F-value
0.357***	0.754	1655.11***

주: * P<0.05, ** P<0.01, *** P<0.001

여가 및 문화 영역은 ‘취미생활’, ‘가족생활’, ‘문화생활’, ‘봉사활동’ 등 네 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있다. 다른 영역에 비해 여가문화영역은 모든 변수에서 유의적인 결과가 도출된 것은 유사하나 변수 간의 계수 값에 대한 차이가 크게 추정되었다. ‘문화생활 영역’에 대한 계수 값이 가장 크게 추정되었는데 영역과 문항 구성에 한계가 있어 상위영역인 ‘여가·문화’와 중복적인 요소

가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취미생활'이 높게 추정되었는데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에 대한 만족도 보다 높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어 개인적인 취미활동이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보다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낮게 추정된 영역은 '봉사활동' 영역인데 아직까지 봉사활동이 지역주민에게 대중화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응답자의 거주지가 농촌인 경우가 많아 봉사활동의 주체 보다는 오히려 봉사의 대상의 성격을 갖으며, 농업 등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현실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적인 것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 여가문화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상수항	취미생활	가족생활	
0.455***	0.283***	0.116***	
문화생활	봉사활동	R ²	F-value
0.446***	0.081***	0.811	1741.23***

주: * P<0.05, ** P<0.01, *** P<0.001

보건·복지 영역은 본인의 '건강상태', 지역의 '의료시설', 사회 구성원 위한 의료지원 등의 '의료체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영역도 모든 변수에서 유의적인 결과가 나왔으며 이중에서 지역 의료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보건·복지 영역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지역의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고 지역적 편차가 큰 현실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의료지원 등의 의료체계가 보건·의료부문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대적으로 개인의 건강상태는 다른 사안에 비해 해당 부문의 만족도에 적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 보건복지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상수항	건강상태	의료시설
0.833***	0.035***	0.426***
의료지원	R ²	F-value
0.395***	0.709	1312.61***

주: * P<0.05, ** P<0.01, *** P<0.001

교통부문은 사회 인프라의 한 부분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요인이라 따로

구분하였으며 '도로망', '교통통행', '대중교통', '주차'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다른 상위영역에 비해 교통 부문은 세부항목 간의 계수 값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에 '도로망의 정비'에 대한 만족도가 교통부문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로가 교통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교통통행의 원활함'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과거에 비해 차량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체증이 생활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 것을 반증한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주차의 편리'함의 순서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둘의 계수 값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12. 교통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상수항	도로망	교통통행	
0.202***	0.305***	0.255***	
대중교통	주차	R ²	F-value
0.211***	0.195***	0.792	1541.13***

주: * P<0.05, ** P<0.01, *** P<0.001

재난·안전 부문은 특히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많은 관심을 갖는 영역이다. '지역의 재난 발생정도', '치안의 유지', '구난 체계', '안전교육 및 훈련'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 직접적인 '재난의 발생 빈도 및 정도'가 해당 영역의 만족도에 미치는 정도가 가장 크게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지역 '치안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도 '재난정도'와 함께 상위 영역인 재난·안전 영역을 구성하는 직접적인 요소인 것과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이 높게 추정되었는데 앞의 치안유지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사전적인 예방차원이라는 점에서 다른 요소와 구분되는데 최근 큰 사회적 사건 및 사고와 관계되어 이의 방지와 구난을 위한 훈련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표 13. 재난안전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상수항	재난발생	치안유지	
0.195***	0.316***	0.238***	
구난체계	안전교육	R ²	F-value
0.184***	0.234***	0.808	1701.90***

주: * P<0.05, ** P<0.01, *** P<0.001

생활의 주된 거주지인 주거환경도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네 가지의 세부영역으로 구성하여 포함하였다. 네 가지는 '주택', '생활 편의시설', '환경의 청결함', '소음의 정숙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주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거의 근원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생활 편의시설'과 '환경의 청결함'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주거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연적 환경과 연관이 있는 청결함이나 정숙함 보다 주변 편의시설에 더 크게 만족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정숙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은 응답자 중에 도심이 아닌 상대적으로 조용한 농촌 거주자가 많은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4. 주거환경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상수항	주택	편의시설	
0.393***	0.318***	0.216***	
청결도	정숙도	R ²	F-value
0.215***	0.171***	0.823	1879.18***

주: * P<0.05, ** P<0.01, *** P<0.001

응답자의 사회생활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이웃과 동료와의 생활', '지역 정치 및 행정', '개인 모임 활동'의 정도 및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표 15. 사회생활 및 공공서비스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상수항	이웃동료	정치행정
0.999***	0.264***	0.321***
모임활동	R ²	F-value
0.232***	0.741	1543.21***

주: * P<0.05, ** P<0.01, *** P<0.001

세 가지 구성항목의 계수 값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이 중에 지역의 정치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위영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이 증가되고 복지사회가 되어 가면서 공공기관의 역할의 중요성과 기대가 증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웃과 동료와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적인 모임의 참여도 유사한 정도로 '사회생활과 공공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6. '생활 만족도' 구성요인 별 영향

상위영역		세부영역	
소득소비	0.582***	가계 재정상태	0.473***
		소득 분배의 형평성	0.217***
		소비수준 만족도	0.204***
노동	0.142***	근로시간 만족도	0.276***
		근무환경 만족도	0.273***
		직무 스트레스	0.253***
생활 및 사회서비스	0.122***	업무에 대한 자긍심	0.106***
		정치 및 행정 만족도	0.321***
		이웃 및 동료 간 갈등	0.264***
여가문화	0.107***	개인적 모임 및 활동	0.232***
		문화생활 만족도	0.446***
		개인적인 취미활동	0.283***
보건복지	0.057***	가족과의 여가생활	0.116***
		타인을 위한 봉사활동	0.081***
		지역 의료시설 만족도	0.426***
교육	0.026*	의료복지서비스만족도	0.395***
		건강상태	0.035***
		교육성과 만족도	0.372***
교통	0.009	교육 인프라 만족도	0.357***
		교육 시스템 만족도	0.183***
		도로망 정비 만족도	0.305***
주거환경	0.005	교통 체증 정도	0.255***
		대중교통 만족도	0.211***
		주차 만족도	0.195***
재난안전	-0.048***	주택 만족도	0.318***
		생활편의시설 만족도	0.216***
		환경의 청결도	0.215***
소음의 정숙도	0.171***	소음의 정숙도	0.171***
		재난으로부터 안전	0.316***
		치안 만족도	0.238***
구난체계의 만족도	0.234***	안전교육 훈련 정도	0.234***
		구난체계의 만족도	0.184***

주: 상위영역 계수 값은 전체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세부영역 계수 값은 각 상위영역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함.

이상에서 상위영역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영역에서 각각 어떤 구성요소가 해당 영역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각각의 영역별로 분석을 하여 종합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생활만족도의 구성요소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크기로 재배치하고 전체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편의상 재정리를 한 것일 뿐 세부영역 전체를 단순히 계수 값의 크기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이해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즉, 상위영역과 세부영역은 각각 다른 '전체 만족도'와 '상위영역별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즉, 정리된 영역별로 따로 회귀분석이 이루어진 결과로

해석도 이에 따라야 한다.

IV. 결론

개인의 근로, 소득 등의 경제활동이나 문화, 예술 등의 여가활동 등도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며, 국가의 각종 정책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행복한 삶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 및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과 함께 지방자치제 정착에 따른 지역연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를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여 보고 이를 회귀분석하여 어떤 요인이 주민의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만족도의 추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최상위에서는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9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의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항목별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추정결과 전체 생활만족도는 7점 척도에서 4.433점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9개 영역에서는 주거환경 영역이 4.9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문화가 4.155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세부 영역에서는 주변환경의 깨끗함에 대한 만족도가 5.142로 가장 높게 조사된 반면 타인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인한 만족도가 3.547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주민생활만족도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영역별 회귀분석을 보면 9개 영역 중에서 '소득·소비' 영역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노동'과 '생활 및 사회서비스' 부문도 생활만족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교통과 주거환경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으며 재난·안전 영역은 부호가 반대로 추정되었다. 각 세부영역별로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모든 영역에서 포함된 세부항목이 유의적인

결과가 추정되었다. 부문별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소득·소비'에서는 '가계의 재정상태', '노동'에서는 '근로시간', '생활 및 사회서비스'에서는 '지역의 정치 및 행정', '여가·문화'에서는 '문화생활', '보건·복지'는 '의료시설', '교육'은 '교육성과', '교통'은 '도로망', '주거환경'은 '주택', '재난·안전'은 '재난 회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간생활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즉, 총 만족도 및 각 영역별 만족도에 유의적이고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한 정책에 중점을 두어 실시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단계별로 주민생활만족도를 측정하고 나아가 회귀분석을 통해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지역별 비교연구 등이 보완된다면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시행에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 [1] 강창민, 양기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평가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10.
- [2]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국민대통합위원회, 2009.
- [3]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민의 삶의 질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9.
- [4] 김영순, *경남도민의 삶의 질 평가 지표 개발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010.
- [5] 김진아, 변병설, 조희선, "주민의 삶의 질 분석,"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2권, 제2호, pp.149-169, 2015.
- [6] 박병호,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성과와 경제사회발전지표," 한국EU학회, 제14권, 제2호, pp.95-123, 2009.
- [7] 심수진, 이희길, *통계개발원 2009년 하반기 연구 보고서 제4권-삶의 질 지수 작성방안*, 통계개발원, 2009.

[8] 이정태, 권영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경기도민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1호, pp.97-132, 2010.

[9] 이석준, 이효성, “SNS에서의 개인의 사회비교 경험유형 및 사회비교 지향성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2호, pp.574-590, 2016.

[10] 이현송, “소득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회지, 제23권, 제1호, pp.91-117, 2000.

[11] 임근식,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pp.47-89,

[12] 정선기, *대전 시민의 삶의 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2007.

[13] 주은선, “노동시간이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7호, pp.750-759, 2016.

[14] <http://qol.kostat.go.kr/blife/main.do>

[15] M. B. Frisch, J. Cornell, M. Villamueva, and P. J. Retzlaff, “Clinical Validation of the Quality of Life Inventory: A Measure of Life Satisfaction for Use in Treatment Planning and an Outcome Assessment,” *Psychological Assessment*, Vol.14, pp.92-101, 1992

[16]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OECD, 2009.

[17] OECD, “Better Life Index 2014,” 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18] W. Pavot and E. Diener,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Vol.5, pp.164-172, 1993.

[19] R. W. Rice, “Organizational Work and the Overall Quality of Life,” *Applied Social Psychology Annual*, Vol.5, pp.155-178, 1984.

[20] Veenhoven, Ruut, “Why Social Policy Needs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58, pp.33-45, 2002.

[21] http://www.unicef.org/policyanalysis/index_

68637.html

[22]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756&langId=en>

저 자 소 개

조택희(Taek-Hee Cho)

정회원



- 1999년 2월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박사)
- 2011년 2월 : 서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2012년 9월 ~ 현재 : 충북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경제교육, 국제경제

배민기(Min-Ki Bae)

정회원



- 2003년 2월 : 영남대학교 조경학과(조경학박사)
- 2008년 3월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초빙연구원
- 2009년 12월 ~ 현재 :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관심분야> : 환경정책, 도시안전